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 직원들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하고 지금 당장 이행하라! 투쟁승리!

투쟁속보

총파업6일차

2021년 9월 7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파업 대오 1,004명 일주일 만에 1천 명 돌파!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안암 358명, 구로 355명, 안산 282명 및 보건의료노조 산별 간부들 포함 1,004명의 대오 달성!

파업 6일 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록이 또 쓰였다. 그동안 비대면 파업으로 서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걱정도 잠시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가 안암 병원 로비로 몰려들어 잠시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안암병원의 경우 결의대회 전, 병동 간호사 모임을 통해 부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과 행동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 20분 경, 구로 및 안산대오가 병원 정문으로 대열을 유지하며 이동했고, 3개 병원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다. 안암병원 정문에서 본격적으로 행진이 이어졌으며 재단 앞까지 질서있게 행진했다. 재단 앞에 도착한 파업 대오들은 최재원 조직부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기세있는 집회를 시작했다.

노재욱 지부장은 “시설에만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투자해야 한다”

노 지부장은 “고대의료원은 2017년에 매출액이 1조에 달해 ‘1조 클럽’에 들었고, 1년에 10%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다른 병원들은 적자였지만 고대의료원은 1년에 1,000억 원을 수익으로 벌었다. 그만큼 직원들은 숨들릴 틈도 없이 일했다. 작년에도 임금은 동결이었다. 이제 우리 고생한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에만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투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정규직의 서러움, 정명퇴 사직자리의 고충,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교대근무의 절망을 파업으로 돌파할 것.

이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안암병원 최덕용 조합원은 비정규직시절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정규직화의 절실함을 토로했고, 구로병원 형동우 조합원은 정명퇴 사직자리로 인한 고충을 말했다. 안산병원 임슬기 간호사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고 일하는 힘든 사실을 지적하며 오래 다시고 싶은 마음에 파업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어 파업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낭독문은 안산병원 김연수 조합원과 안암병원 방재정 조합원이 낭독했다.

의무부총장님, 저희의 호소도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누구보다 현장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의무부총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호소문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문을 파업대오가 아닌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파업에 참가 중인 직원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글을 통해 노조와의 교섭을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남기는 걸까요?

이미 의무부총장님도 저희들의 호소와 절절함을 이해했지만 설득할 자신이 없기에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이제라도 의무부총장님이 저희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이제라도 의무부총장님이 결단하여 파업을 끝내주십시오.

고대의료원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의료원은 비용과 손실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이를 시행하는 직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고려대학교의 건국이념인 구국정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파업시태 해결 촉구!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노재욱 파업대책본부장 대회사

